조개껍질에 새긴 '오색영롱' 예술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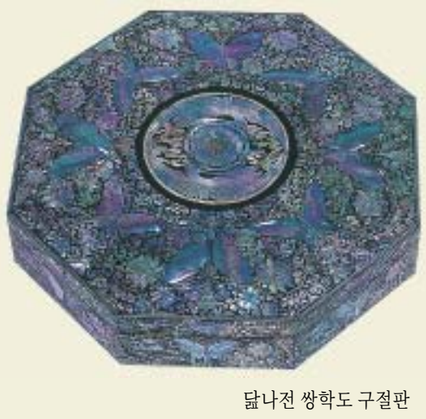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8>

제24호 나전칠기-나전장 김 정 렬씨

뷏왜장녀 나전탈 목걸이

뷏나전 샌님탈 브로치

뷏나전 음자리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닮나전 쌍학도 구절판

닮나전 포도무늬 서류함

나전칠기로 만든 자개장이나 장신구들은 '부의 상징'이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전통 공예품이다.

전복이나 진주조개의 껍질로 만들어 빛에 따른 화려한 색상이 시선을 모으고 정교한 장인의 손길을 따라 가지각색의 문양을 연출한다.

이들 패각(貝殼)을 여러 형태로 잘라낸 후 칠을 바른 용기 표면에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칠을 발라 표면을 연마해 문양을 드러낸 나전칠기는 최고의 품격을 지닌 작품으로 탄생한다.

지금도 최고급 공예품으로 평가받는 나전칠기의 유래는 청동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적으로 고구려 고분에서 칠기의 흔적이 보이고 신라와 백제에서도 칠기가 유행했다고 전한다.

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칠기물은 금·은 등의 금속판을 무늬대로 오려 칠면에 붙이고 다시 칠한 후 무늬의 칠을 칼로 긁어내어 문양을 표현하는 '평탈기법'(平脫技法)을 사용했다.

이후 고려시대는 세련된 귀족문화와 함께 금속선을 꼬아 식물줄기 문양을 장식하고 거북이의 등껍질을 얇게 갈아 그 뒷면에 붉은 색을 칠한 '대모복채법'(玳瑁伏彩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조선시대는 고려에 비해 세공의 정밀함이 다소 떨어지나 새로운 기법이 개발돼 고려 나전칠기와 차별화된 문양을 선보였다. 대표적 기법으로 '타발법'(打拔法)은 둥글고 넓은 자개의 표면을 망치로 쳐서 바닥에 닿게 하는 기법이며 '끊음질'은 자개를 길고 가늘게 오려낸 후 직선은 길게 곡선은 촘촘하게 끊어가며 무늬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형작업과 회화적 표현을 가능케 했다.

고급공예품 '나전칠기' 본고장 통영서 첫발

안창덕·조성훈 선생에 사사 … 36년 한길

조선시대의 나전칠기는 현재까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칠기의 바탕면을 살리면서 다양한 주제의 무늬들을 자연스레 배치한 장식도안을 발달시켰다.

특히 조선말기에는 문방구류, 가구류, 여성용품류 등의 기물들이 제작됐으며, 궁중은 물론 일반 서민까지 폭넓게 사용됐다.

오랜 동안 당당히 생활문화의 한 축을 이뤘던 나전칠기의 전승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4호 나전칠기장- 나전장 김정렬씨(52·양주시 양주읍 산북3리)는 전통기법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킨 장인이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인 나전칠기장은 패각을 붙여 모양을 내는 '나전장'과 옻칠을 전문으로 하는 '칠장'(배금룡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작업특성상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36년 경력의 김씨는 나전칠기의 본고장 통영에서 일을 배웠다. 안창덕 선생과 고 김태희 선생(중요무형문화재 10호 나전칠기장)의 제자 조성훈 선생에게 사사했다.

14살부터 시작한 이래 나전칠기 외길인생을 걸어오는 동안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공방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딴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이상하게 나전칠기 작업이 질리지도 않더군요"

오랜 숙련과 창의력을 발휘한 김씨는 1992년 제22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상과 다음해 제2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씨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각종 공인 자격증을 획득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국가기술 칠기기능사 자격(1993년)과 문화재 보수기능(1995년)을 획득했고 1996년에는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에게 부여되는 '명장' 칭호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첫 개인전…50여점 선봬

전통기법 + 현대적 감각 디자인 '호평'

또 나전상감기법 특허(1995년)를 비롯 3개의 전통 특허와 제5회 직업능력개발촉진대회에서 철탑산업 훈장(2001년)을 받기도 했다.

나전칠기에 대한 김씨의 열정은 지난해 12월 중순 첫 개인전(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실)으로 한 획을 그었다.

처음에는 제작기간도 많이 걸려서 기존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려 했다는 김씨는 "장인의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시란 생각에 3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당시 전시작품은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진 공예품 50여점을 선보였다.

거북등껍질의 자연무늬를 이용한 장신구, 제작기간만 5년이 걸린 국산 통 오동나무 소반은 생옻과 온당초무늬자개를 올렸다. 또 전통 주름질과 끊음질자개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포도무늬홍송서류함'과 두터운 자개를 붙일 때 칠이 울게되어 올리기 어렵다는 은행나무 재료의 소반 그리고 흥선대원군 난초를 올린 '나전난초도병풍' 등이 호평을 받았다.

김씨는 전통기법을 살리면서 현대 감각의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작품으로 양주별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2호)의 등장인물인 양반, 왜장녀, 포도부장 등을 응용해 팬던트와 브로치, 넥타이핀 등 장신구를 선보였다.

첫 개인전에 앞서 2001년에는 국내 최대의 나전칠기 대형벽화인 양주별산대놀이 작품을 제작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작품은 가로 3m, 세로 1.7m 크기로 현재 양주시청 현관에 설치돼 있다.

전통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씨는 전승발전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토로했다.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무형문화재가 많이 알려졌지만 전승현황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본 문화재의 경우 전체적인 작품 수준이 좋은 것은 정부가 작품을 적극 구입해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전승지원금 차원을 너머 실제 작품판매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다 향토미 넘치며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의 부재와 이를 위한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단순히 정부지원만이 아니라 보유자들도 장인의식을 갖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보유자들이 자신의 작품과 전수자 및 이수자의 작품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 및 판매하는 행위를 경계했다. 장인의 작품과 구분해야 소비자들이 더 신뢰한다는 것이 김씨의 지론.

김씨는 10년전부터 자신의 작품에 A, B, C 등의 구분을 두어 각기 다른 낙관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가정집에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거실에는 나전재료인 패각을 자르거나 붙이는 작업을 하며, 백골(나무로 짠 목공예품 원형) 상태인 소반이나 보석함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거실을 지나 안방에는 2평 규모의 건조실도 마련돼 있다.

"집안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작업하고 있지만 개인작업을 넘어 좀더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전수관을 마련하고 싶어요"

딸 영효·아들 동환씨 '나전칠기' 脈 이어

"전수관·경기북부지역 문화공간 만들고파"

김씨는 경기북부의 취약한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대중화를 위해 전통문화체험 교실이나 아트샵 등을 운영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산세가 수려하고 서울과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주말이면 단체별로 보석함이나 장신구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면 우리 것의 소중함도 더불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신상품 개발 등에 투자한 비용과 얼마 전 위암 수술비로 들어간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씨에 이어 딸 영효씨(25·여)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중인 아들 동환씨(22)가 나전칠기의 명맥을 잇고 있다.

김씨는 "지금 나전칠기 장인은 80년대에 비해 95%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자식들이 대견하다"며 "10년 후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기능인대회 등 각종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정렬씨는 장애인기능대회 심사를 맡은 이후 이들의 장애 정도에 맞는 공예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또하나의 바람이다.

"경증장애인이라면 간단한 기술을 전수시켜 그들의 생계는 물론 직업의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기술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842-3356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

국내 최대 나전칠기 대형벽화 '양주별산대놀이'

2001년 10월 공개 … 양주시청 현관에 설치

양주시청사 신축과 함께 제작에 들어간 양주별산대놀이 벽화(3m×1.7m)는 나전칠기로 제작한 대형작품이다.

지난 2001년 10월 공개 당시 나전칠기 공예가 회화로 발전했다는데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역의 전통 가면극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는 양주시의 제의에 따라 김정렬씨가 11개월의 제작기간을 걸쳐 만든 작품. 이 작품은 전복과 진주조개 껍질, 거북등껍질 등 10여가지의 나전재료를 활용, 전통 칠기기법으로 완성했다.

4가지의 원근법을 사용해 현대회화를 보는 듯하며, 분홍색과 푸른색, 검정색 등 10여 가지의 색채를 띤 조개껍질(3.6cm×3.4cm) 조각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붙였다.

자개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다고 김씨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자비 1천여만원을 추가하는 열정을 발휘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작품인 만큼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품에 돈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그때는 장인의 작품이 아니죠."

한편 이 작품은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박형철 교수 등 미술 및 나전칠기 전문가의 감수와 지도를 받기도 했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